

일본을 만든 것은 한국이다

홍종욱

1. 식민주의와 냉전 의식이 응축된 “일본이 형님이다”

일본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식민지 책임과 보상 문제, 경제 협력과 마찰, 영토 갈등, 한류와 혐한 등 한일 사이에 놓인 여러 문제의 저변에서 일본은 어떤 눈으로 한국을 보아 왔을까. 이번 특집에서는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을 식민주의와 탈식민화라는 관점에서 살피겠다. 특히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이 역으로 일본이라는 주체를 스스로 규정해 온 측면에 유의하고자 한다.

2022년 8월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은 가운데 일본 중의원 의원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씨는 “한국은 형제국인데 일본이 형님이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의 진의를 묻는 기자들에게 에토 씨는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을 생각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실은 한일 현대사에서 일본 형님론은 그리 낮

홍종욱(洪宗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식민지 시기 좌파 지식인의 전향 문제, 내재적 발전론의 등장과 전개 등을 연구했고, 최근에는 북한 역사학에 관심이 있다. 주요 논저로 『戰時期朝鮮の転向者たち: 帝国 / 植民地の統合と亀裂』(有志舎, 2011),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공저, 아연출판부, 2014),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역사비평』 140, 2022) 등이 있다.

선 이야기가 아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그해 11월 미국 방문길에 일본에 들러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가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며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겠소.”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로부터 60년이 넘게 지난 후 일본 국회의원 입에서 형님 격인 일본이 “한국과 굳게 연계, 협조하여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커다란 도량을 가지고 일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박정희 앞에서 기시도 했을 법한 말이다. 에토 씨는 1941년 전남 강진에서 식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원로 정치인이다. 식민지 운운하며 일본 형님론을 펴는 게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어디든 아저씨들이 모여 형님, 동생 따지는 것은 쓴웃음을 짓게 하지만, 에토 씨의 발언은 한일 현대사의 서글픈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에토 씨는 일한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것을 일미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것에 비유했다. 박정희의 일본 형님 발언이 미국 방문길에 나온 사실과도 겹친다. 미국-일본-한국이라는 위계를 굳이 감추지 않는 에토 씨의 어른스러움 덕분에 미국 주도 신냉전 아래 한일관계의 속살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에토 씨가 그저 한국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는 일한의원연맹 부의장을 지낸 대표적 친한파 의원이다. 일본태권도 연맹 회장을 지냈고 ‘일한 해저터널 추진 의원 연맹’ 대표도 맡고 있다. 일한 해저터널은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뉴스를 뒤적여 보니, 과거 에토 씨는 통일교 정치단체인 국제승공(勝共)연합과 뜻을 같이하는 ‘승공 추진 의원 명부’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얼마 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멸공’이 화제가 되어 민망함을 감추기 어려웠는데, 일본 형님 발언 뒤를 쫓다 보니 국제승공연합과 통일교라는 오래된 이름을 다시 듣게 된다.

2. 일본 보수 정치와 통일교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나라(奈良) 시내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범인 야마카미 데쓰야(山上徹也)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계가 깊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범인의 어머니가 막대한 현금을 한 탓에 집안이 어려워져 평소 통일교에 반감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사건 직후 제발 범인이 재일조선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험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탓이었다. 그런데 밝혀진 범행 동기에 한국과 관련이 깊은 통일교가 등장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통일교나 한국이 가해자는 아니었다. 다만 아베 전 총리가 비극을 당한 원인에 한국이 관련된 것은 사실이었다.

일본 사회에서 험한이 분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본 보수 정치가 통일교라는 한국의 한 측면과 깊이 연관된 사실을 일본 사회도 한국 사회도 새삼스레 깨닫고 놀랐다.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기도 한 기시야말로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송공연합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장본인이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자민당 아베 파를 비롯한 보수 정치가들과 통일교의 관계를 잇달아 폭로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을 꾸릴 때 통일교와 관계가 깊은 이들은 배제하겠다고 천명했다. 일본 정치와 통일교의 관계는 비로소 열어질 듯하다. 아베 총격 사망은 전후 일본 정치에 자리 잡은 냉전의 화석을 깨뜨려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기시 노선을 계승한 아베 전 총리가 펼친 정치의 중심에는 늘 한국과 북한이 있었다. 그리고 아베는 바로 그 한국, 통일교와 관계 탓에 목숨을 잃었다. 정치가 아베 개인의 삶으로는 아이러니이지만, 동시에 일본 정치를 규정하는 한국이라는 놀라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3. 식민지가 있어야 제국이 있다

근대 일본의 한국 인식 근저에는 식민주의가 있다. 문명이 야만을 지배하고 지도한다는 우월의식, 제국 의식은 아쉽게도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이 성립한 다음에도 사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이른바 후식민(포스트콜로니얼) 상황이다. 식민지 시기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이 거셌다면, 독립 이후에는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독립운동과 식민주의 비판 역시 세계사적 동시대성을 지녔다.

다만 이미 확립된 제국의 중심이 식민지를 찾아와 지배하고 이에 대해 피식민자가 저항한다는 인식 틀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다. 복수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제국의 정의라면 식민지가 있어야 제국이 있을 수 있다. 즉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국보다 식민지가 앞선다. 재일조선인 역사학자 안병태(安秉珪)는 침략과 저항이라는 구도를 넘어,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조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일본의 최근 백 년간의 발전이 이와 같은 속도와 코스일 수 있었겠는가”¹는 말로 일본과 한국의 상호 전제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식민지가 제국을 만든다는 인식은 최근의 식민지 연구, 제국 연구에서 자리를 잡았다. 비스와나탄(Gauri Viswanathan)은 “영문학은 식민지 인도에서 탄생했다”는 말로 이러한 정황을 표현했다.² 일찍이 소설가 최인훈은 ‘제국의 종교는 식민지’라는 의미심장한 인식을 내비쳤다.³ 최인훈의 말을 부연하자면 한국은 일본의 종교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국 인식은 그저 이미 확립된 일본이라는 주체가 그 바깥의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일본이라는 주체는 한국에 의해 즉 한국을 바라보는 눈에 의해 비로소 형성

1 안秉珪, 「服部之總の発想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報』 22, 1968.

2 Gowri Viswanathan 著, 三原芳秋 編訳, 『異議申し立てとしての宗教』, みすず書房, 2018; 미하라 요시아키(三原芳秋)·김동식·윤대식, 「‘국민문학’ 재고: ‘문학이론’의 보편성을 둘러싸고」, 『한국학연구』 51, 2018.

3 장문석, 「주변부의 세계사: 최인훈의 태풍과 원리로서의 아시아」, 『민족문학사연구』 65, 2017.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국을 보는 눈은 식민주의이지만 동시에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무언가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은 식민지이지만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 한국을 비롯해 메이지 유신 이후 획득한 해외 영토를 ‘식민지’가 아닌 ‘외지’(外地)라고 불렀다. 일본은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인종적, 문화적 유사성을 근거로 일선동조(日鮮同祖)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이야기했다. 피터 두스(Peter Duus)는 만주국 통치에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이어지는 일본 제국의 원리를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라고 설명했다.⁴ 20세기 후반 후식민 상황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의 한국 인식은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 즉 식민주의의 본질을 밝히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이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구별, 식별은 식민 통치의 근간을 이룬다. 외견상 쉽게 드러나는 인종적 구별은 별다른 설명 없이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식민주의 비판마저 그저 나쁜 것이 나쁜 것이라는 데 그치게 만든다. 이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 식별의 곤란함은 인종주의에 설명을 요구하고 결국 식민주의를 내파할 계기로 작동했다. 영국과 인도보다는 영국과 아일랜드 관계와 겹친다. 영국 제국사 연구에서 아일랜드가 과연 식민지인가는 논쟁적인 주제라고 들었다. 식별의 곤란함은 식민자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낳는다. 일종의 내부 식민지로 남겨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인종적 유사성에 더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일의 역사적 교류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근대 일본의 한국 인식의 중심에 식민주의를 놓으면서도 전근대 이래 역사와 기억의 축적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 나아가 식민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 인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할 때 일본이라는 주체를 확립하는 데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는지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4 Peter Duus, 藤原帰一 訳, 「植民地なき帝国主義: 『大東亜共栄圏』の構想」, 『思想』 814, 1992.

4. 민주화, 탈냉전, 탈식민화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를 방문해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김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발전도상국에 대해 세계 최대의 경제원조를 행하는 동시에 평화헌법 아래 비핵평화의 원칙을 지켜 온 것을 평가하고,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이 쏟은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일본에서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김대중 구원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구 중주국 지식인이 구 식민지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고 개입하는 전형적인 후식민적 상황이었다. 그러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어 돌아와 구 제국 일본을 칭찬하는 성숙함을 보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이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느꼈다.”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도쿄대 대학원에서 유학할 때 한국 사회와 경제를 연구하던 핫토리 다미오(服部民夫)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과 일본 국회 연설은 한국의 민주화와 탈식민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이벤트였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었고, 일본에서는 ‘윤사마’로 상징되는 제1차 한류 붐이 터졌다. 이 무렵부터 한일 양국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상호 방문하는 폭발적 만남이 이어졌다. 일본 경제 신문은 한국의 삼성을 본받으라고 외쳤고, 일본 시민들은 고졸 인권 변호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 사회의 활력을 동경했다.

탈식민화는 갈등과 아픔도 뜻했다. 한국에서는 독재와 냉전 체제 아래 억눌려 있던 식민 지배 청산 문제가 민주화와 맞물려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사죄와 보상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냉전 시기 한일 양국 모두 쉬쉬하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고, 2001년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역사 교과

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졌다.

2002년 9월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평양선언을 채택했다. 평양선언에서 제시한 북일 국교 정상화 방향은 한일 경제 협력 방식에 무라야마 담화의 식민 지배 사과를 더한 형태였다. 그러나 과거 문제를 매듭짓고 탈식민화의 길을 걸으려는 양국 사이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당시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 없다는 강경론을 주도하여 북일 교섭을 돈좌시킨 것이 다름 아닌 아베 전 총리다. 탈식민화의 흐름을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이 막아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탈냉전, 탈식민화의 소용돌이는 2000년대 중반에 정점에 달했다. 2006년에는 한국과 대만의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를 반대하는 거리 데모에 참가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의원이 한국을 방문해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불과 10여 년 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탈식민화의 방향을 둘러싼 격렬한 만남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채 급격하게 식어 갔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 시대의 마감을 상징했다.

5. 근본으로 돌아가 일본의 한국 인식을 돌아본다

탈식민화의 격렬한 교섭이 막을 내리고 벌써 10년이 흐른 오늘, 다시 한 번 근본으로 돌아가 일본의 한국 인식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심희찬 논문은 일본에게 조선이 단순한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내부에 숨어 있는 외부로서 일본이라는 존재를 불안에 휩싸이게 한다는 점에서, 데리다의 표현을 빌려 조선이야말로 일본을 틀 짓는 존재 즉 ‘파레르곤’이라고 규정한다. 이 논문은 근대 일본 역사학의 성립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내재하는 외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음에 주목하여, 근세

시기 유학자와 국학자 사이의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동아시아적 보편주의와 일본적 특수주의 사이의 대립을 추출한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욕망이 어떻게 침략적 아시아주의로 연결되는지 그 매듭을 밝히고자 했다.

요네타니 논문은 전후 일본에서 식민주의 비판이 생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일본 제국은 식민지의 자치, 독립운동에 의해서라기보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 해체되었다. 스스로 제국을 청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은 탓에 제국 의식의 온존이 지적되고는 한다. 이 논문에서는 쓰루미 슌스케와 스즈키 미치히코에 초점을 맞춰 1960년대 일본에서 식민주의 비판이 싹트는 과정을 그려 냈다. 일본의 지식과 학문이 탈식민화, 식민주의 비판이라는 세계사적 현상과 접속하고자 할 때 한국 인식을 통과해야만 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 논문은 1945년 이전 일본 지식인의 식민지, 아시아 인식을 다룬 저자의 『아시아/일본』(アジア/日本, 2006, 한국어판 2010)의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장문석 논문은 일본 지식인의 식민주의 비판이 식민주의의 연장일 수 있음을 고발한다. 1970년대 일본 지식인의 김지하구원운동 역시 후진적인 독재 국가 한국을 선진적인 일본 시민이 돕는다는 후식민적 정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논문은 조선이라는 계기를 통해 일본인의 주체성의 근본적 재표명을 촉발하고자 한 오무라 마스오와 가지무라 히데키에서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검출했다. 두 사람에게 조선이란 일본인 주체성의 ‘구성적 외부’였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조선을 문화의 총체이자 독립한 역사의 소유자로 파악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러할 때 비로소 일본도 독립한 총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리 논문은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인식을 시대별, 주제별로 개관했다. 아마도 일본은 세계에서 북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일 것이다. 어쩌면 한국보다 북한 관련 보도량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북한 관련 보도는 역사적인 축적을 반영하여 정확한 판단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이상시 하는 관음증적 보도도 적지 않다. 이 논문은 북일 평양선언이

발표되고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진 2002년을 주요한 분기점으로 보았다. 그 무렵 일본 사회에서는 북한과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성의 역전이 시도되는데 주류 언론이 이를 긍정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이 논문에서 밝힌 일본의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바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는 실체를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심정명 논문은 주로 2010년대 일본 소설에 보이는 한국, 한국인 묘사를 분석했다. 2000년대 초중반 한일 사이의 폭발적이고 강렬한 만남을 통과한 이후 일본 사회의 한국 인식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제는 일본어 문학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등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에스닉한 분류로 환원되지 않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인물로서의 한국인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문화’에 의해 구별되고 식별된다. 인종 없는 인종주의,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 비판과 통하는 문제의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설은 미디어가 만들어 내고 유포하는 한국인 이미지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들을 다시금 만들어 내고 축적하는 아이러니컬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6. 일본을 만든 한국,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

이번 특집에는 두 편의 글을 더 기획했다. 한 편은 2000년대 초중반 민주화, 탈냉전, 탈식민화의 격랑 속에서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피는 글이었다. 한국 사회의 활력을 동경하던 당시 일본 사회 흐름을 ‘한국을 보라’(Look Korea)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했다. 다른 한 편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을 다루고자 했다. 한국인, 재일조선인의 신체에 대한 일본인의 멸시와 환상을 되새김으로써 일본인의 한국 인식의 무의식을 짚어 보고자 했다. 집필자의 사정으로 두 편의 글을 함께 신지 못해 아쉽다.

이번 특집에서는 일본의 주체성을 구성한 가장 중요한 참조축인 한국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 한국이 일본을 만들었다는 뜻이 될 텐데, 한국이 처한 이러한 위치를 심희찬 논문에서는 ‘파레르곤’이라고 장문석 논문에서는 ‘구성적 외부’라고 표현했다. 요네타니 논문은 일본 지식인의 비판적 담론이 한국 인식을 통과해 형성되는 과정을 보였다. 모리 논문에서는 일본 언론의 북한을 바라보는 왜곡된 눈이 오늘의 일본 사회의 병폐를 만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명 논문은 지금의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한국을 보였다.

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은 물론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순신 민족주의라고 할 만한 내용을 담은 <명량>(2014)과 <한산>(2022)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자존감을 높여 탈식민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지배와 저항이라는 식민주의의 구도에 갇히는 면이 있다. 다만 이 또한 대중의 선택이므로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의 반일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증오, 어찌 보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대중이 적국에 대한 적개심을 분출하는 ‘2분 증오’(Two Minutes Hate)를 연상케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주화와 탈냉전의 산물이므로 스스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민족주의를 낫은 것으로 공격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주의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 혹은 글로벌 트렌드일지 모른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식민지의 대명사이자, 오늘날 후식민주의 연구의 메카로 각광받는 인도를 보라. 인도 영화 <RRR>(2022)은 식민지 시기 영국의 압제에 맞서는 인도 영웅의 투쟁을 그려 대중을 열광시켰다. 21세기는 아마도 20세기 이상으로 폭발적인 탈식민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의 탈식민화가 민주화, 탈냉전 이후에 본격화했듯이 세계적인 탈식민화, 식민주의 비판도 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국제 사회에서 식민 지배를 범죄라고 보는 입장이 천명된 것은 21세기 들어서인 200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 철폐 회의를 통해서였다. 탈식민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 한일관계

가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7. 선진국 한국이 일본에게 던지는 물음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강국이 된 듯하다. 한국이 약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담론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같은 민족주의라도 과거와 달리 무언가 밝고 명랑한 측면이 도드라진다. 이러한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일본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런 점은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 NHK 기자인 이케하타 슈헤이(池畑修平)의 『한국, 내적 분단』(韓国, 内なる分断, 2019)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기자인 사와다 가쓰미(澤田克己)의 『반일 한국이라는 환상』(反日韓国という幻想, 2020)은, 일본 사회는 한국을 반일인지 아닌지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는 국내 정치 갈등이 큰 문제라서 반일이라고 부를 만큼 일본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⁵

SNS 등에서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필요로 한다. 그것도 밝고 명랑한 민족주의가 아닌 국가에 의해 통제되던 예전의 민족주의를 그리워한다. 아베 총격 사망 사건으로 ‘승공’을 매개로 했던 통일교와 일본 보수 정치의 커넥션이 드러났다. 냉전의 탈을 쓰고 식민주의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형님’ 노릇을 하려는 일본 보수 세력의 낡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한편에서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는 대부분 한류 작품이 그야말로 도배를 하고 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류 드라마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자신들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5 池畑修平, 『韓国, 内なる分断』, 平凡社, 2019; 澤田克己, 『反日韓国という幻想』, 毎日新聞出版社, 2020. 두 책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주최 저작비평회〈小野容照, 『韓国「建国」の起源を探る: 三・一独立運動とナショナリズムの変遷』(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21)〉(2022. 8. 4.)에서 오노 야스테루 씨가 소개했다.

20세기가 냉전과 반공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페미니즘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2016)은 2018년에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이후 2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본에게 20세기 한국은 반공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페미니즘의 자극이 전해오는 곳이다. 통일교가 일본에서 과거 국제승공연합을 앞세웠다면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여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부정적이다. 일본 사회에서 보자면 페미니즘도 안티 페미니즘도 그 첨단은 한국에서 오는 셈이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파레르곤이자 구성적 외부로서 기능하고 있다.